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회

	11. 30	12. 07	12. 14
대 표 기 도	윤미경 자매	이상호 목사	이예준 형제
성 경 봉 득	윤미경 자매	정환영 형제	이예준 형제

교회사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현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현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감사 : 말씀을 전해주신 맹기현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4. 한국방문 – 추문경 자매(26일 출발) 이예준 형제(27일 출발)
 5. 홈페이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나눔의 시간 – 경아 Steinbauer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임미수 성도, 오세란 자매 추문경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현금	
감사현금	
십 일 조	
합계 (Euro)	
온라인현금(11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기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현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FD 22X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영 Chor	-----	반주자
*기원 Altargebet	-----	이예준 형제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Gemeindelied	290장	다같이
기도 Gebet	-----	장래황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롬 3:9-18(신p242) (Römer 3:9~18)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예준 형제
헌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맹기현 목사
설교 Predigt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맹기현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맹기현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 주돈혁 형제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돌아오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재빨리 돌아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곁에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깊이 상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정은 아버지의 품으로 제일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모두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부끄러운 나머지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아버지의 진노하심이 두려워서 우리가 자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순종할 자신이 생길 때 돌아가리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돌아가리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고통 받는 자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중독, 깨어진 관계, 재정적인 압박, 고통 받는 양심과 같은 것들은 당신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보내시는 경종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 / Erwin Lutzer 목사(시카고 무디교회 명예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나 자신의 삶에서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월의식과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